

## 상파울루 주지사 내외 주최 만찬답사

존경하는 제랄루 알키민 주지사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내외와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파울루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브라질리아가 질서정연한 계획도시라면, 상파울루는 생동감 넘치는 활력의 도시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두 도시가 여러분 국기에 새겨진 '질서와 전진'을 상징하며 브라질의 밝은 미래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상파울루는 브라질 GDP의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남미경제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알키민 주지사께서 취임하신 후 더욱 매력적인 외국인투자 대상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도 이곳의 타우바테와 캄피나스로 공장을 이전해서 물류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파울루의 이 같은 투자환경 개선 노력은 주 발전은 물론 브라질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울리스트' 여러분의 저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귀빈 여러분,

나는 어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브라질은 지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더 가까운 이웃이 된 것입니다.

조만간 상파울루 대학에 한국어 및 한국학 강좌가 개설될 것이라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상파울루가 양국간의 협력을 앞장서 이끌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상파울루에는 남미에서 가장 많은 5만여 우리 교민이 살고 있고, LG·삼성 등 우리 기업들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지사님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주지사 내외분의 건강과 상파울루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한국과 브라질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